

역설이 주는 통렬함

4/2005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국회의원님들~! 저희 국민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ㅠㅕ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덕목을 계승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힘겨운 싸움을 두 둔 멀건히 뜨고도 관망만 한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민생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못나고 무능한 저희 국민들의 방관 때문에 싸움을 못그치시고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이렇게 손바닥에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파리처럼 싹싹 빙니다. 제발 국회 좀 열어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지역주의를 조장하실지라도 저희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멋적으셔서 그만두셨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내내 휩쓸려다니며 지역주의란 마약을 늘 권해드린 죄는 무어라 사죄드려도 모자랄 죽을 죄란 건 아오나 그저 저희 국민들이 못나서 그럴것거니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국회 좀 열어주세요. ㅠㅕ

추운 날씨에 장외를 돌아다니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들이 뛰어가 등을 때밀면 못이기는 척 국회로 들어가실 걸 뻔히 알면서도 배가 좀 고프긴 하지만 어쨌든 따스한 집구석에 앉아 게으름을 피우기만 했으니 용서가 어려우시겠지만 그저 출장부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고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제발 제발..제발로 국회로 돌아가세요.

저희 철딱서니 없는 국민들이 너무 보챌나봅니다. 그런 탓에 존경하는 고귀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국민들의 2만불 소득을 위해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감격의 눈물이 다 나오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까짓 2만불 소득 좀 늦어도 좋아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너무 걱정들 마시고 제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국회 좀 열어주세요..네? 네? 네? 위의글은 지난해 11월경 국회일들은 싸여있는데 국회위원들이 국회에 안들어 가고 있을 무렵 인터넷 (아마 한겨레) 을 통해 접한 글이다. 너무 재치있고 재미있어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리 내놓다.

이러한 글은 거드름 피우는 양반층을 비웃는 우리 고유의 서민 문화와 많이 유사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대중적인 매스콤 에서는 그리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종류의

글이다. 지난 5-6 년동안 이러한 글들이 보편화 되며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는 데는 세가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인터넷의 출현이고 둘째는 노무현의 반계급제 와 권력분할 운동의 성공이며 셋째는 히딩크의 서양적이며 투명하며 냉정한 논리 적용의 성공 이라고 본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설명을 많이 덧붙여야 하는 것은 아오나 독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을 강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컬럼니스트의 기본 자세 임으로 추가 설명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권순재 변호사